



Christotelic  
Interpretation  
of Ephesians  
4:7-10

# 에베소서 4:7-10의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

A Christotelic Interpretation of Ephesians 4:7-10

황 창 기

[ 신학과교수, 신학박사 ]

1. 시삭하면서	150
2. 본문 [4:7-10]의 위치	150
3. 본문 [4:7-10]의 해석	151
4. 구약 인용[4:8]의 변경 이해	163
5. 마감하면서	169

## 황창기 교수

고신대학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Westminster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와 종교학석사를 받고, 그후 남아공화국의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을 졸업했다. 고신대학 신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 성경공회 신약 번역 위원장, 한국성경신학회장, 고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문서선교회」,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나: 예수님의 인격에 비춰 본 신약의 구속사적 해석과 설교」, 「성광문화사」,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해석」 이레서원 등이 있다.

## 요약문 :

엡 4:8에 시 68:18을 인용한 것이 이 바울 서신에서 가장 어려운 해석 문제 중의 하나이다. 제일 큰 어려움은 시편 68:18에서는 주께서 선물을 인간에게서 '받으셨다' 가 엡 4:8에는 선물을 '주셨다' 로 변경되어 실제 의미가 정반대로 뒤바뀌게 된 점이다. 본고에서는 본문을 주해하고 또 대표적인 제안들을 비평하면서, 그리스도 완결 해석이라고 하는 사도적 해석을 살리는 해석 원칙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스도 완결 해석에서는 '구약을 그리스도 완결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 기사가 지향하는 목표요 완(결)성 및 마침[롬 10:3, τέλος]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구약을 읽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 완결해석이야말로 본문 8-10에서 구약이 변경되어 인용된 이유를 만족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 주요어 :

내러오심, 선물(은사), 만물을 충만하게 하다, 사도적 해석, 그리스도 완결적

## A Christotelic Interpretation of Ephesians 4:7-10

The use of Psalm 68:18 in Eph.4:8 has proved to be one of the most difficult interpretive problems in this Pauline Epistle. The major interpretive difficulty in this text is that, while in Psalm 68:18 Yahweh 'receives' gifts from men, in Eph.4:8 Christ 'gives' gifts to the church, a change by the writer which almost reverses the meaning of the actual text. In this article I will offer an alternative reading that exploits an apostolic hermeneutics, with exegetic arguments and critiquing some leading interpretive proposals as well. An apostolic hermeneutics is described as a Christotelic understanding in which "to read the Old Testament 'Christotelically' is to read it already knowing that Christ is somehow the end [Ro.10:3, τέλος] to which the Old testament story is heading. A Christotelic interpretation satisfactorily accounts for the quotation and elaboration by the writer in vv. 8-10.

### Key words

Descent, gifts, fill all things, apostolic hermeneutics, Christotelic



## A of Ephesians 4:7-10

## 1. 시작하면서

우리 본문은 에베소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 이유는 4:8 절에 시편 68:18절이 변경되어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으나 아무도 그 변경 이유를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들이 영감으로 독특하게 저술한 것이 성경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의 영감을 인정한다면 영감 된 구약성경을 어떻게 감히 고친단 말인가? 그래도 변경하고야 말았다! 그러므로 그 변경에는 어떤 원칙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해석법이나 원칙이 무엇일까? 그 답을 발견하는 것은 성경이해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제 에베소서 4:7-10을 중심으로 이 비결을 풀어보자.

## 2. 본문 [4:7-10]의 위치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 서신과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교리 혹은 신학 부분 [1-3장]과 의무 또는 윤리 부분 [4-6장]인데 '원리' [indicative]와 '명령' [imperative]이라고 한다. 이 두 부분을 대개 '그러므로' [therefore]란 접속사로 잇는다. 둘째 부분인 '명령'에는 '교회의 행동지침' [conduct of the church]을 제시하는데 이를 다음 일곱 가지로 자세히 나눌 수 있겠다.<sup>1)</sup> 즉

ㄱ] 하나로 행하라 [walk in unity/ 4:1-16]

ㄴ] 거룩하게 행하라 [walk in holiness/ 4:17-32]

ㄷ] 사랑으로 행하라 [walk in love/ 5:1-6]

ㄹ] 빛으로 행하라 [walk in light/ 5:7-14]

ㅁ] 지혜로 행하라 [walk in wisdom/ 5:15-6:9]

ㅂ] 영적전투에 맞서라 [stand in warfare/ 6:10-20]

ㅅ] 결론 [conclusion/ 6:21-24]

따라서 이 중에서 우리 본문이 '교회의 행동지침' 중에서 첫 번째 지침을 다루고 있다고 보아진다. 즉 '하나로 행하라' [walk in unity]는 단락에 속해 있다. 이 단락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하나 됨의 근거' [basis of unity/4:1-6]요, 그 둘째가 '하나 됨의 유지' [preservation of unity/4:7-16]로 나뉘는데 우리 본문은 후자에 속한다.

이 글에서는 '선물을 주심' [4:7-10]에 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11-16 절부터는 '선물의 나눔'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 본고의 범위 밖이다. 4:7-10을 주해하면서 선물의 성격과 그 구원사적 특성에 치중하는 것이 우리 목적과 부합된다고 하겠다.

## 3. 본문 [4:7-10]의 해석

서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부분은 에베소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본문이다. 따라서 학자들의 해석과 견해도 매우다양하다.

### 3.1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선물 [7절]

4:7 Ἐνὶ δὲ ἑκάστῳ ἡμῶν ἐδόθη ἡ χάρις κατὰ τὸ μέτρον τῆς δωρεᾶς τοῦ Χριστοῦ

1) Harold W. Hoehner, *Ephesians: An Exege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66

개역: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문장의 주어 '은혜' [χάρις]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한 일도 없는 죄인에게 그저 주어지는 은총이다 [1:2]. 특히 관사가 붙어서 특별한 면을 강조한다. 즉 이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라기보다 교인 각 자에게 주어지는 봉사 [ministry]를 위한 특별한 '은사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와 은사가 같이 쓰이기도 한다. [참조 고전 1:4, 7; 롬 12:6]. 이 특징은 첫째 모든 믿는 자 각 개인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to each one of us] 예외 없이 주어지는 점이고, 둘째 주님께서 성도 개인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이다.

여기 주동사 [ἔδωκεν]는 신적수동태로서 주님께서 수여하시어 성도 개인에게 그저 주어져 주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에 사용되는 점을 드러낸다. 동시에 격 [금]언적 부정 과거동사 [gnomic aorist]<sup>2)</sup>로 성도이면 으레 받는 은사임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 동사의 주체는 세상에 내려오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임을 계속되는 문맥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7절 후반절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κατὰ τὸ μέτρον τῆς δωρεᾶς τοῦ Χριστοῦ]라는 표현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τῆς δωρεᾶς τοῦ Χριστοῦ 는 '그리스도께서 (그저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다. 선물 δωρεᾶ 은 선사품 [gift]이란 말로 신약에 11번 중 바울이 5번이나 사용하였다.<sup>3)</sup> 전치사 [κατα]와 대격은 '...에 따라',

2) M. Zerwick S. J. [adapted from fourth Latin edition by J. Smith S.J.] *Biblical Greek* (Rome, 1963) ss.256

3) Hoehner, *Ephesians* 450

'... 의하여' 라는 기준을 나타내어, 분량 τὸ μέτρον에 따라, 즉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각 신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인 동시에 선물의 분량도 결정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신자는 선물을 받으나 그 분량은 다르다는 말이다.

### 3.2 선물을 주는 근거 [8-10]: 그리스도의 승천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어둠과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의 보좌에 오르시어 만유의 통치자로 다스리심을 나타낸다. 특히 신약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은사 [선물]를 주신 것을 나타낸다. 성도들 각 자가 왕 직, 선지자 직, 제사장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교회 및 주님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은사 [선물]를 주신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본문 4:8절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왜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명확한 답이 없었던 것이다.

#### 3.2.1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시는 근거

4:8 διὸ λέγει· ἀναβὰς εἰς ὕψος ἠχμαλώτευσεν αἰχμαλωσίαν, ἔδωκεν δόματα τοῖς ἀνθρώποις.

개역: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뒤에 나오는 이 문장 [8절]이 앞에 나오는 7절에서 말하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은혜가 주어지는' 근거를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therefore], 이런 이유로 [for this reason]란 뜻의 전치사

διὸ 가 이를 뒷받침한다. 다시 말해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7절의 내용이 틀림없다는 주장과 비슷한 어법이다. 그럼 8절의 내용은 무엇인가?

3.2.2 신약의 인용이 구약과 다른 점들

바울은 여기서 구약 시편 68:18절을 인용하고 있다. [MT 69:18. LXX 67:19]

LXX: ἀνέβης εἰς ὕψος ἡχμαλώτευσας αἰχμαλωσίαν ἔλαβες δόματα ἐν ἀνθρώπῳ

MT: עָלִיתָ לַמְרוֹם | שָׁבִית שְׁבִי לְקַח מִמֶּנּוּ בְּאֶזְבֵּי

개역: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교 선 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70인 역 [LXX]은 MT를 그대로 번역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바울이 쓴 4:8은 LXX과 5 가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구약 70인 역 [LXX]이 어떻게 신약 [NT]에 변동되었는가?

1] LXX의 한정동사 ἀνέβης 가 NT의 분사 ἀναβάς로 바뀌었다. 즉 ‘당신 [주님]이 올라가셨다’ 가 ‘그가 올라가심’ 으로 변경됐다.

2] 두 동사가 LXX의 2 인칭에서 [ἡχμαλώτευσας: ἔλαβες] NT의 3 인칭으로 각각 [ἡχμαλώτευσεν : ἔδωκεν] 바뀌었다. 즉 ‘당신 [주님]이 사로잡았다.’ 와 ‘당신이 받았다’ 가 각각 ‘그가 사로잡았다.’ 와 ‘그가 주었다’ 로 바뀌었다.

3] 여기서 LXX의 ‘받다’ 가 NT의 ‘주다’ 로 정반대로 변경된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학자들의 논쟁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LXX의 단수 ἀνθρώπῳ 가 NT에서 복수 ἀνθρώποις 로 변경되었다.

5] 명사 앞의 전치사 ἐν 가 τοῖς로 바뀌었다.

3.2.3 변경 인용에 대한 견해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방식으로 시편을 인용하였을까? 이 본문이 난해하다는 이유가 바로 인용 과정에서 비롯된 이런 차이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내려오심’ [descent]과 ‘올라가심’ [ascent]의 ‘의미’ 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다. 변경 인용을 신화에서 찾는 경우를 비롯하여<sup>4)</sup> 이미 많은 학자들의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sup>5)</sup> 대략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성령의 영감에 따른 저자 바울이 틀림없이 보다 분명한 의미를 밝히기 위함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시편 인용 동기는 수궁이 되나, 그 결과는 이해가 더 어렵게 된 것이 약점이다.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바꾸었는지도 설명이 없다.

2] 구약 본문의 여러 전통을 따랐다는 증거로 설명한다. 탈굄 [Targum] 전통<sup>6)</sup> 이나 미드라쉬 [Midrash] 전통에도 나오는 모세가 하늘로 올라가 ‘토라’ 를 받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4) L. J. Kreitzer, "The Plutonium of Hierapolis and the Descent of Christ into the Lowermost Parts of the Earth" (Ephesians 4.9)", *Biblica* 79 (1998):381-393

5) Hoehner, *Ephesians*, 525-530에서 광범한 참고문헌을 끌고루 수집하였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그의 주석을 크게 의존하였음을 밝힌다.

6) 탈굄 시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재인용, Hoehner, 526]  
You, Moses the prophet, ascended to the firmament;  
you took captivity captive  
you learned the words of Torah,  
you gave them as gifts to the sons of men.

것을 우리 본문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시편 68편을 오순절을 위한 시편으로 언급하는 탈굼을 따라 바울이 이 오순절시편을 랍비들이 주해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시편 68편이 오순절시라는 증거가 전연 없다.

3] 민수기 8:6-19에 나오는 레위 인들이 성막에 시중들기 위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captive]로 이스라엘에게 '선물' 되도록 한 옛 규례를 말한다는 견해이다. 즉 Gary Smith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취하여 교회 사역을 위하여 주신 것으로 보았다.<sup>7)</sup> 그러나 '사로잡힌 자'는 원수들인데, 레위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며, 무엇보다도 시 68:18에서 [주께서] 선물을 받으심' 이 엠 4:8의 '그가 선물을 주셨다' 로 변경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3.2.4 '내려오심' 과 '올라가심' [4:9-10]의 의미

4:9 τὸ δὲ ἀνέβη τί ἐστίν, εἰ μὴ ὅτι καὶ κατέβη εἰς τὰ κατώτερα [μέρη] τῆς γῆς;

4:10 ὁ καταβάς αὐτός ἐστιν καὶ ὁ ἀναβάς ὑπεράνω πάντων τῶν οὐρανῶν, ἵνα πληρώσῃ τὰ πάντα.

개역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sup>8)</sup>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구절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은 '내려오심' 이 곧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

7) Gary V. Smith "Paul's Use of Psalm 68:18 in Ephesians 4:8",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18 (1975): 181-189

나시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가<sup>8)</sup> 부활하신 후에 40일 간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심' 이었다.

1] Harris III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을 출판한 단행본에서<sup>9)</sup>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에베소서 4:8-10의 배경에는,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지만, 그 인용한 구약에 대한 탈굼의 기록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시편 [MT 69:18]해석을 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내려오심' 은 그리스도께서 오순절 성령으로 내려오시어 영적 은사 [선물]를 교회에 주시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내려오신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 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Hoehner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sup>10)</sup> 시편의 '선물을 취함' 을 바울이 '선물을 준 것' 으로 변경한 이유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고, '내려오심' 은 곧 '성령' 이라는 Harris III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다.

2] 가장 최근에 T. G. Gombis가 주로 위에 열거된 비슷한 이유로 Harris III를 비판하였다.<sup>11)</sup> 즉 그는 '그리스도의 내려오심' 을 곧 '성령' 으로 보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며 자료를 잘못 고찰한 결과고 강력

8) εἰς τὰ κατώτερα [μέρη] τῆς γῆς; 을 부분 비교급 혹은 속격 비교급 구문으로 '땅보다 낮은 곳' 또는 '땅 아래 곳' 즉 '무덤' 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음부' [hades 또는 abyss]로 보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부활 전까지는 그곳에 내려가시어 거기 영들에게 전파하였다는 벤전 3:19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τῆς γῆς; 를 동격을 나타내는 속격 [epexegetical genitive 또는 genitive of apposition] 으로 보아 땅은 곧 아랫부분 (가장 낮은 곳)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oehner, *Ephesians*, 533-536

9) W. Hall Harris III, *The Descent of Christ :Ephesians 4:7-11 and Traditional Hebrew Imagery*, (Grand Rapids, Baker Books, 1996) 64-75; idem "The Ascent and Descent of Christ in Ephesians 4:9-10", *Bibliotheca Sacra* 151 (1994): 198-214

10) Hoehner, *Ephesians*, 536

11) Timothy G Gombis, "Cosmic Lordship and Divine Gift-Giving: Psalm 68 in Ephesians 4:8", *Novum Testamentum*, 47 (2005) :370

히 비판하며<sup>12)</sup> 다음과 같은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Gombis는 4:7-10의 중심 [center]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은사 [선물]을 주는 일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주었다' [gave]와 '선물' [gift]이 7절과 11절을 둘러싼 포괄식 구문 [inclusio]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7절의 주장, 8절의 시편 [68:18] 인용, 9-10절의 뒷받침하는 해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은혜 [χάρις]를 주셨음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승전 장수(용사)' [the triumphant Divine Warrior]로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축복하신다고 말한다.<sup>13)</sup> Gombis는 이 '하나님의 승리 용사'라는 렌즈를 통해야 시 68:18을 에베소서 4:8에 변경 인용한 실타래처럼 엉킨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sup>14)</sup>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주적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승전 용사'로 자신의 하늘 보좌에 오르시어 원수들을 이기신 승리의 선물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1:20-23의 내용과도 잘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온 우주의 주님 [Lord]이 되시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자기백성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5)</sup>

3] 최근에 길성남 교수도 학위 논문에 바탕을 두고 최신 저작들을 반영한 역작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란 연구서를 내놓았다.

12) ibid 372

13) ibid 373

14) ibid 377

15) ibid 378-379

그는 “사도는 이 시편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귀를 통해 악한 영들을 굴복시킨 하나님의 종말적 승리”<sup>16)</sup>를 묘사하는 본문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유대인의 이해나 다른 견해로 잘못 기울어지는 해석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셈이다.

### 3.2.5 승천의 목적 [10 하]: 만물 충만

4:10 ὁ καταβάς αὐτός ἐστιν καὶ ὁ ἀναβάς ὑπεράνω πάντων τῶν οὐρανῶν, ἵνα πληρώσῃ τὰ πάντα.

개역: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내려오신 그분 [예수님] 자신이 [αὐτός] 또한 [καὶ] 하늘에 오르신, 바로 그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순서도 '내려오심'이 먼저이고 '올라가심'이 그 다음이다. 이미 말한대로 Harris III가 '내려오심'을 그리스도가 오순절에 선물을 주시는 '성령'이라고 한 말은 옳지 못하다. 정확히 말해서 성도 각 자에게 주어진 오순절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십자가-부활-승천으로 이어진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즉 그리스도의 출애굽으로 [눅 9:31]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주신 것이다. [행 2:33] 오순절 선물은 승천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즉 승천이 없었으면 선물도 없는 것이다. [no ascension, no gift] 그런데 그리스도의 '내려오심'을 오순절 '성령 자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분'이란 바울이 말한 셋째

16) 길성남,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 유니온 선교회, 2006) 291



하늘 [고후 12:2]이나 지극히 높은 하늘을 지나셨다는 표현 [히 4:14; 7:26; 빌 2:9]으로 모든 권세 위에 계시며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승천 위치 [locale of Christ's ascension]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승천의 목적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 [ἵνα πληρώσῃ τὰ πάντα.]이라 한다. 단순히 교회만이 충만케 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만물 [pa, nta]은 만유라고 번역되기도 한다.<sup>17)</sup> 이 말의 헬라어 [πάντα]는 중성 복수 대격으로 이 우주는 물론이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과거의 것, 지금의 것, 앞으로 올 것,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아래 것을 다 포함된다. [골 1:16 참조]. 그야말로 피조된 모든 것을 다 망라하는 말로서 우주보다 훨씬 크며, 하늘의 권세와 정사들 천사 등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 분은 '온 교회적이신 분' [whole Church Person]이요, 동시에 '만유적이신 분' [Panta Person]<sup>18)</sup>으로 십자가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분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하늘에 오르심은 사실상 온 우주보다 더 큰 '만유'에 대 변혁을 일으킨 사건이다. 흔히 말하는 '천지개벽'이 이미 일어나게 한 사건이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운명이나 오순절 성령강림을 천지의 대 격변 [catastrophic event]으로 묘사한다.<sup>19)</sup> 우리도 이러한 대 격변을 이미 겪은 상황에서

17) '만물'이라는 말보다 '만유'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 만물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닿는 물체만을 일컫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18) 황창기,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이해」, (서울:이레서원 2000) 13-55

19) 그래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다든가 [마 27:45]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며...[마 27:51-52]"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말했지만 [마 27:54], 부활 때도 큰 지진이 일어났다 [마 28:2]. 또 오순절 성령강림 때도 사도행전에 인용된 요엘서의 표현도 비슷하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날마다 주의 형상으로 화해가는<sup>20)</sup> [being transformed into his likeness 고후 3:18]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 때는 더 큰 온전한 재창조의 변혁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만유적이신 분' [Panta Person]의 소유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목적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는데 [10하], 이는 에베소서 1:23의 표현과 일맥상통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ἥτις ἐστὶν τὸ σῶμα αὐτοῦ, τὸ πλήρωμα τοῦ τὰ πάντα ἐν πάσιν πληρουμένου] 즉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을 이해하려면 우선 그리스도께서 곧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τοῦ τὰ πάντα ἐν πάσιν πληρουμένου]임을 기억해야 한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이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위하여' [ἵνα in order that] '하늘에 올라가시었다' 이제 만유가 그리스도로 채워졌다. 이 말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골 1:17]는 표현과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심" [고전 15:28]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승천 목표'는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본래의 목적을 이루신 것이다. 그것은 곧 온 우주 만물과 완전한 주권적 관계로 돌입하는 것이다. 즉 승천이 없었다면 온 우주 만물의 '충만'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충만을 기다리는 상태일 것이다.

땅에서는 징조를 베를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행 2:19-20] 요엘서를 인용한 이 말씀 [행 2:17-18]은 성령강림 때 상황 묘사라면 위에 인용한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AD 70]와 관련된 묘사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대주의의 종말로 옛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나타낸다. 온 우주를 나타내는 성전의 파괴는 우주적 대 격변을 내다보게 한다.

20) ὅτι ὁ αὐτὸς ἐνέκλιμα μεταμορφώμεθα

이 위치에서 그 분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은사 [선물]를 주시는 권리를 가지시게 된 것이다. 이 말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승전 용사'로서 자기 백성 각 자에게 분량의 분량에 따라 은사 [선물]을 주셨다는 주장과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여기서 '충만하다' [πληρώω]는 말은 일단 시간적, 물량적 목표를 다 이루고 [fulfill], 완성하며 [complete], 채우는 [fill]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로마서 10:3절의 '마침' [완결 = τέλος]과 어의론적 동의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완결이 서로 연관되고 중첩되는 면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충만 및 완결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사역의 유익 또는 수혜 [benefits]이다. 그 결과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어 교회의 모든 성도 각 사람에게 은사 [선물]를 주었다 [7절]. 이들 은사 가진 사람들 [gifted persons]을 통한 교회 및 하나님 나라의 사역 [11절]이 시행되고 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통치]이 실현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만유가 변화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11절에서 은사 [선물:gifts]를 받은 자와 직분 [offices]을 가진 자를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1절에 나오는 것은 직분목록이 아니라 은사 목록이기 때문이다.<sup>21)</sup>

21)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이 구절에서 열거한 것은 은사 [선물; gifts]이지 직분 [offices]이 아니라는 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신약에서 '직분'이란 말이 은사와 연관되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 은사와 직분의 차이는 무엇인가? Hoehner는 다음 몇 가지를 열거한다.

첫째, 직분은 사도 [행 1:21-25], 장로/감독 [딤후 3:1-7; 딤후 1:5-11], 집사 [행 6:1-6; 딤후 3:8-13]에 한정된다.

둘째, 이런 직분에 뽑힌 사람들은 택함/세움을 받든지 [행 14:23; 딤후 1:5] 자격에 따라 사람들에게 의하여 선출된다. [행 1:26; 6:3; 딤후 3:1-13], 반면에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다. [엡 4:7; 롬12:6; 고전 12:11, 18, 28]

셋째, 모든 사람은 은사를 가지나 [엡 4:7; 고전 12:7, 11; 롬 12:4] 모든 사람이 직분을 가

## 4. 구약 인용 [4:8]의 변경 이해

본 논문의 목적에 비추어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시 68:18이 에베소서 4:8에 변경하여 인용한 이유에 관한 만족한 설명이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내려오심과 오르심에 대하여는 전통적 이해가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Calvin도 "하나님의 승리를 서술한 이 시편이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죄와 사망과 악한 영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연결하고 있다"<sup>22)</sup> 고 하였다.

### 4.1 사도적 해석 [Apostolic Hermeneutics]

에베소서 4:8을 변경하여 인용한 것은 사도가 영감으로써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정경을 이와 같이 완성하였다는 것 외에 설명이 안 된

지지 않는다. 넷째, 장로나 집사와 같은 직분 자에 대하여는 결혼 여부를 언급하나 [딤후 3:2; 4:5; 12; 딤후 1:6]은사를 가진 자에 결혼 여부는 말하지 않는다. 장로와 집사 직분은 결혼하고 이혼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대하여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다섯째, 직분은 신앙 초보자가 가질 수 없으나 [딤후 3:6, 10; 딤후 1:8-9], 은사는 연령이나 신앙 성숙도에 관계없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

여섯째, 어떤 직분은 남자만이 가지나 [딤후 3:2, 12; 딤후 1:6], 은사를 가진 사람은 남녀 구분이 없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직분과 은사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은사를 가졌기에 직분 자는 은사자이다. 그러나 은사를 가진 자라고 모두 직분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사람만이 장로나 집사가 된다. 7절과 11절의 혼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도 이 구분을 명확해야 할 것이다. Hoehner, *Ephesians*, 539-540

22) Paul very properly quoted the account given of God's ascension, and applied it to the person of Christ. The noblest triumph which God ever gained was when Christ, after subduing sin, conquering death, and putting Satan to flight, rose majestically to heaven, that he might exercise his glorious reign over the Church. *Ephesians*, 79 of 175

다. 즉 우리는 사도가 왜 이렇게 변경해서 엡 4:8을 기록하였는지 본문 이해에 가장 기본적인 문법적 역사적 [grammatical -historical] 해석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승리가 그 핵심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십자가 승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왕으로 등극하시어 모든 것을 충만 [완성]케 하신 차원을 사도들이 붙잡은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대 변혁 [the Great Transformation]이란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대왕의 하사품'으로 온 교회에 성도 각 사람에게 은사 [선물]을 주신 대 변혁의 사실을 사도들이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영감으로써 구약을 인용할 때 변경하여 신약을 기록한 것이다. 성경을 기록하면서 대 변혁에 순응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승리, 즉 대 변혁에 따라 제 2성전기의 해석방법과 전통<sup>23)</sup>에 비추어 기록하였다는 것이 곧 '사도적 해석' [Apostolic Hermeneutics]이다<sup>24)</sup> 이 사도적 해석 원리에 따라 4:8절이 시 68:18을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도적 해석은 미국 필라델피아의 Westminster 신학대학원 구약교수 Peter Enns가 주창하는 새로운 주장이며<sup>25)</sup> 필자도 소개한 바

23) Peter Enns, *Inspiration and Incarnation: Evangelicals and the problem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132-151

급년에 이 책에 대한 비평과 저자의 응답은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

(1) G. K. Beale, "Did Jesus and Apostles Preach the Right Doctrine from the Wrong Texts? : Revisiting the Debate Seventeen Years Later in the Light of Peter Enns' Book, *Inspiration and Incarnation, Themelios*, 32 (2006): 18-43

(2) Peter, Enns "Response tp Professor Greg Beale", *Themelios*, 32/3 (2007): 5-13

(3) G. K. Beale, "A Surrejoinder to Peter Enns", *Themelios*, 32/3 (2007): 14-25

24) Peter Enns는 사도적 해석은 "제 2성전기의 해석세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bid* 176

25) Peter Enns, *ibid* 특히 제 4장을 보라

있다.<sup>26)</sup> 그 요지는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그리스도께서 일으킨 대 변혁에 맞도록 그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즉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주님 오심으로 인한 '말세' [these last days 히1:2]를 맞이한 신약 공동체의 상황에 좀 더 알맞도록 구약 내용을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들이 구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절정의 사건을 향하여 전진한다고 이해한 것이다. 그들이 이 목표점인 '완(성)결' [τέλος]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고 그의 영의 조명을 받음으로써만이 가능하였다.<sup>27)</sup>

그런데 우리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점은 최근에는 서부 Westminster 신학대학원의 Dennis E. Johnson도 이 사도적 해석 원리에 따라 4:8이 변경되었다고 보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에베소서 4:8에서 신약 저자가 구약을 인용하고 수용하는 원칙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십자가 구속 사역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왕으로 하늘에 좌정하시어 다스리심을 받는 '신약 교회의 정황'에 더 맞도록 바울 사도가 변경한 실례로 간주할 수 있다고 했다.<sup>28)</sup>

#### 4.2 사도적 해석 실례의 특유성

먼저 Peter Enns가 그의 책 132 페이지 이하에서 든 여러 실례 중에서 서너 가지만 소개함으로 이해를 도우려고 한다.

26) 황창기,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나 : 예수님의 인격에 비취 본 신약의 구속사적 해석과 설교」, (수정 증보판)[서울: 성광문화사 2005] 부록에서 '애원하는 과부의 비유(눅 18:1-8)의 그리스도 완결적 이해' 참조

27) Peter Enns, *op cit* 177

28) *Him We Proclaim: Preaching Christ from All the Scriptures*,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2007) 146 n21

1] 로마서 11:26에서 이사야 59:20 인용하면서 “구속자가 시온에 (to) 임하여”를 “구속자가 시온으로부터 (from) 오사”로 변경하였다.<sup>29)</sup> 이는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바울이 예수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참 이스라엘 [이방인 포함]이 죄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2] 히브리서 3:7-11에서 시편 95:7-11을 변경하여 인용하였다.<sup>30)</sup>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노하시어 광야에서 40년간 배회하도록 한 시편을 히브리서 저자는 접속사 [그러므로 δὲ]를 삽입함으로써 교회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지켜보심으로 변형시켰다

3] 고후 6:2에서 이사야 49:8을 인용하면서<sup>31)</sup>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로 바꾸었다. 여기에 ‘지금’은 개인적인 ‘지금’이 아니라, 종말론적 ‘지금’이다. 즉 이사야가 말한 미래의 이스라엘과 바벨론에 관한 구원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죄에서의 구원이란 말이다. 이사야가 말한 ‘그 날’은 주님의 부활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2천년 동안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사야가 바라본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salvation in Christ]으로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이다.

사도적 해석의 특유성에 대한 Peter Enns의 주장을 들어보자 “여기서 바울이 이사야 49: 8절을 인용하면서 의도하는 것은 현대 학문적 주석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역사적 스

토리의 궁극적 성취 [ultimate fulfillment]라는 것이다”<sup>32)</sup> 거기 “이사야의 말들이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신 때이기에, 이사야의 말을 그 용어대로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예비적 단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이사야 49:8을 예언차원에서 성취하신 것이 아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외국 이방나라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바울 때에는 하나님의 종국적이고, 단번에 이룩하신 인류구속 행위 안에서 ‘최고로 성취되고’ [being superfulfilled] 있다고 이해한다.”<sup>33)</sup>

바울이 여기서 [그 사건에 대하여] 구약을 읽음에서 내린 결론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다른 모든 것조차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자체가 바울로 하여금 구약을 새로운 방법으로 읽도록 한다.<sup>34)</sup>

요약하자면, 사도적 해석의 특이성은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 창조가 열린 대 변혁을 ‘이미’ 누리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구약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사도들이 구약 모든 사건들이 향하고 있는 그리스도 ‘완결’ [τέλος]를 발견하여 이를 성경기록에 적용하였다는 말이다. 에베소서 4:8도 이 원리에 따라 사도들이 변경시켰다는 말이다.

#### 4.3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이 더 적합한 용어

이러한 사도적인 해석을 ‘그리스도 완결적’ [Christotelic]해석이

29) Peter Enns, op cit 138-139

30) Peter Enns, ibid 139-142

31) ibid 135-136

32) ibid, 135

33) ibid 136

34) ibid 153

라 한다.<sup>35)</sup> 이 용어는 그리스도적[Christological] 또는 '그리스도 중심적' [Christocentric]이란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이다. 이유는 '구약이 드러내는 그리스도 증거'에 대하여 이 말이 신약성도들의 성경 이해를 더 잘 전달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리스도 중심 해석'이란 말은 거의 모든 구약 페이지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는 인상이 짙다고 하겠다. 심지어 잠언이나 전도서에서도 그리스도를 찾아내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은 구약의 이야기와 인물을 지나치게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약점도 있다. 즉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이 '무조건 그리스도'로 둔갑하는 모형론적 이해 일변도의 폐단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반면에 '그리스도 완결 해석'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구약 기사가 지향하는 '목표', 또는 '완성(결)' [τέλος]이라는 사실을 신약해석자들이 이미 알고서 구약을 읽는 것을 말한다.<sup>36)</sup> 그러므로 대 변혁 사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 --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절정 [climax]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총만케 하는 [πληρώω] '완결' [τέλος], 또는 '완성'임을 고려하지 않는 성경해석은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35) 사도적 해석에는 그리스도 완결적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완결적 [ecclesiotelic] 차원도 있다. 신약저자들의 구약을 인용은 그리스도의 인품[Person]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body]인 그의 백성에게도 맞춘다. 말하자면 구약 스토리는 그리스도로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교회]에도 성취된다는 말이다. 인류의 중심 사건인 그리스도의 오심은 곧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형성 [신약 교회]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36) Peter Enns, ibid 154 "To read the Old Testament 'Christotelically' is to read to read it already knowing that Christ is somehow the end to which the Old Testament story is heading" [강조는 저자의 것임]

른 성경해석은 그리스도 완결 이해 [Christotelic interpretation]에서 비롯된다는 말이다.<sup>37)</sup>

## 5.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 즉 봉사를 위한 은사' [7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은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시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시편 68:18을 변경하여 인용하였기에 많은 논란이 많이 있어 왔다. 즉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사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임을 전통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그 변경 인용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없었다. 본고에서는 신약저자들의 사도적 해석에 따른 '그리스도 완결적 이해'가 그 변경 이유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목표'요 '완성'이며 '완결' 이심을 전제하고 성경을 이해하여야 함을 발견하였다. 나아가서 지금까지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해석'의 오해도 불식하게 되는 부차적인 성과도 있었다.

37) 그러나 아직도 이 해석법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개척분야임에는 틀림없다.

## 참고도서

## 신학 정기 간행물

- Beale, G. K. "Did Jesus and Apostles Preach the Right Doctrine from the Wrong Texts? :Revisiting the Debate Seventeen Years Later in the Light of Peter Enns' Book, *Inspiration and Incarnation, Themelios*, 32 (2006): 18-43
- \_\_\_\_\_ "A Surrejoinder to Peter Enns", *Themelios*, 32/3 (2007): 14-25
- Clark David G. "Ephesians 4:7-16: The Pauline Perspective of Pentecost" in *Faces of Renewal* ed. Paul Elbert (Peabody: Hendricksen Publishers Inc. 1988) 128-136
- Dormandy, Richard, "The Ascended Christ and His Gifts" *Expository Times*, 109 (1998): 206-207
- Enns, Peter, "Response tp Professor Greg Beale", *Themelios*, 32/3 (2007): 5-13
- Frisch Amos, "The Exodus Motif in Kings 1-14",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87 (2000) :3-21
- Gombis Timothy G. "Cosmic Lordship and Divine Gift-Giving: Psalm 68 in Ephesians 4:8", *Novum Testamentum*, 47 (2005) :367-380
- Gosnell Peter W. "Networks and Exchanges :Ephesians 4:7-16 and the Community Function of Teachers", *Biblical Theological Bulletin* 30 (2000): 135-143
- Harris, W. Hall III, "The Ascent and Descent of Christ in Ephesians 4:9-10", *Bibliotheca Sacra* 151 (1994): 198-214
- Kreitzer, L. J. "The Plutonium of Hierapolis and the Descent of Christ into the Lowermost Parts of the Earth' (Ephesians 4,9)", *Biblica* 79 (1998):381-393
- Smith Gary V. "Paul' s Use of Psalm 68:18 in Ephesians 4:8",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18 (1975): 181-189
- Taylor Richard A. "The Use of Psalm 68:18 in Ephesians 4:8 in the Light of the Ancient Versions", *Bibliotheca Sacra* 148 (1991): 319-336

## 주석 및 일반도서

- 길성남,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 유니온 선교회, 2006
- 황창기,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나 :예수님의 인격에 비춰 본 신약의 구속사적 해석과 설교」,(수정 증보판) 서울: 성광문화사 2005
- 황창기,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이해」, 서울:이레서원 2000
- Calvin, John, *Ephesians in John Calvin Collection* on CD ROM, AGES software, 1998
- Enns Peter, *Inspiration and Incarnation: Evangelicals and the problem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 Johnson, Dennis E. *Him We Proclaim: Preaching Christ from All the Scriptures*,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2007
- Harris, W. Hall III, *The Descent of Christ :Ephesians 4:7-11 and Traditional Hebrew Imagery*, Grand Rapids, Baker Books, 1996
- Hoehner, Harold W. *Ephesians: An Exege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 Lincoln, Andrew T. *Ephesians* : WBC vol 42, Dallas, Word Books, 1990
- Neufeld, Thomas R. Yoder, *Ephesians: Believers Church Commentary*, Scottsdale [PA]: Herald Press, 2002